

# 화해의 사람들

김동수 반희영 윤성 수현 선교사 82번째 아프리카 이야기

## 기도 제목

### 1. 현지 사역을 위해 ...

목회자 훈련원, 어린이사역, 청소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이곳 흑인지역에 잘 심겨지고 열매 맺기를 위해

### 2. 현지 비자와 사역방향을 위해...

남아공의 비자법 강화로 인해 비자를 갱신하고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자로 인해 떠나시는 선교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 3. 윤성이와 수현이를 위해...

윤성이가 11학년(고2)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 기도함으로 진로를 잘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수현이는 2학년이 되었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늘 행복하고 풍성한 사랑을 느끼며 자라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4. 한국 방문을 위해 ...

한국방문을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3년만의 방문이라 계획을 잘 세워 효과적인 방문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방향성이 잘 전달되고 후원교회와 개인동역자들이 풍성하게 연결되기를 위해...

파송교회를 위해...



바데일 교회 중, 고등 학생들입니다. 바데일 교회 어린이 사역을 통해 성장한 아이들이 이제 많이들 중, 고등학생들이 되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겠죠... 범위가 많고, 중, 고등 학생들이 임신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는 이곳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순전한 자녀들로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삶속에 예수님이 있기를 계속 해서 기도합니다. 매번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들의 삶과 환경이 쉽지 않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한 번 나온 아이들이 꾸준히 나오지 않고 아이들이 매번 많이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주어진 사명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사역 감당 하려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하는 대상이 이 아이들이 아닌 제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말합니다.

이곳 케이프타운 흑인 지역에 사는 인구 연령층이 아주 낮습니다. 일자리를 위해 이주한 사람들,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여러종류의 범죄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부모들의 돌봄을 많이 받지 않고 있기에 성범죄, 중 고등학생이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의 중, 고등학생들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도 제가 이들에게 복음을 잘 심어 줄 수 있기를 위해 또 이들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